

건강 칼럼

‘쇼닥터 폐해’를 막아라

의료인이 방송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거짓 또는 유사 의료 정보를 전파하는 행위를 우리는 ‘쇼닥터(Show doctor)’라 불러왔다.

일반인들은 의학이나 약학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의사나 약사 등 의료인의 말을 접하면 거의 100%에 가까운 신뢰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들의 말을 믿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들을 믿고, 자신이 상대적으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기에 믿고 따르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누구나 다 보다 건강하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의료인들이 출연한 방송이 끝난 후에는 곧이어 방송에서 언급된 원료나 재료로 구성된 제품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요란하고 현란한 광고와 함께 구매를 유혹한다. 자기도 모르게 그 제품을 꼭

사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도 한다.

방송 중에 몇 퍼센트 특별 할인, 여러 개를 묶어 할인하는 조건, 특정 기간 동안만 구매할 수 있는 혜택 등을 내세우며 마치 굉장히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과연 그럴까?

제품 공급자와 중간 유통업자측에서는 방송사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위탁) 판매 수수료를 제공한다. 최소한 2~3곳의 유통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며, 각 과정에서 경상이익이 발생한다.

각 단계마다 경상이익을 제공해야만 유통이 가능하며, 이익 금액이 정해진 후에야 소비자에

게 전달되는 구조이다.

각 과정에서 경상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잘 알아차리기 어렵도록 각 포장 단위의 수량, 중량, 함량 등을 교묘하게 포장하는 합정이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마치 굉장히 싸게 구매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다.

결국 중간 거품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요, ‘눈 뜨고 있어도 코 베어가 는 격’이다. 알면서도 구입한다면 할 말은 없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민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의를 환기시켰고, 최근에는 국회에서 ‘쇼닥터 방지법’이 발의되

었다고 한다.

주요 골자는 (1)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 등에 출연하여 거짓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

하고, (2) 식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내의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쇼닥터’를 출연시킨 방송에 대한 제재와 주의 관찰,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의 카르텔로 묶여 있는 그들이 제대로 이 법을 이행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건강, 의학, 약학 정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규정에 명확히 포함시키고,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방송 심의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며,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건강 거짓 정보 여부를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부디 발의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이 윤 희

파스코 대표이사

사설

전북 체육계 김대열씨 별세

전북 체육계의 거장 김대열 전북체육회 전 상임부회장이 11월 28일 별세했다. 향년 84세. 고인은 1941년 김제 진봉에서 태어나 남성고등학교와 동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광역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된 지난 1995년 남성고 동기동창 이던 유종근 아태재단 사무차장이 민선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자 선거캠프 좌장을 맡아 캠프를 지휘했다.

유종근 전 지사는 새정치국민회의 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당시 3선 국회의원이던 최락도 후보를 누르고 공천장을 따냈다. 1996년 초대 민선 전북도지사였던 유종근 민선 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그는 전북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맡았다.

상임부회장 시절 부산과 전주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전북이 잇달아 상위에 올라

는 성과를 이뤄내 ‘체육 강도’ 위상을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14개 시 군 단체장들에 비인기 종목과 취약 종목을 골고루 나눠 맡게 했다.

당시 전북은 전국 체전 및 소년 체전 등의 각종 스포츠 대회에서 전성기를 누렸다. 그는 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사비를 들여 도왔다.

고인은 제15대 대선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 사무부총장과 새정치국민회의 조직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상임고문 등 정계에서도 활동을 했다. 제안전설 부사장, (유)대금산업 회장, 통일양반 대표직 등을 지내기도 했다.

김 전 상임부회장은 은퇴 이후에도 후배 정치인들을 지원하고, 지방정치 인재를 키우는 데 주력했다.

전주 올림픽 분위기

전주 올림픽 유치 분위기가 시운통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전주 올림픽 유치 선언 이후, 곧바로 불통 논란이 일어났다.

공식 유치 활동을 시작한 지금, 핵심은 현실적으로 유치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역에 실익이 있는지, 이 두 가지다.

불통 논란은 11월 초 김관영 도지사가 하계올림픽 유치 의사를 공식 발표한 직후부터 불거졌다.

이에 앞서 지난 1년 반 동안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구상을 했지만 지역 여론은 갑작스럽다는 반응이었다.

이 때문에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선 ‘뜬금없다’, ‘차기 지방선거용이다’라는 일각의 의혹을 해소하는 게 전북자치도의 시급한 과제다.

그런 의심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전북에서 올림픽이 유치 가능하도록 모든 정치력과 협상력이 모아져야 한다.

균형 발전, 비수도권 연대라는 전북자치도의 유치 전략이, ‘두 번째 올림픽’이라는 서울의 벽을 뛰어넘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 관리 등에 여전히 강원도 예산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것도 덩어린 현실이다.

올림픽 유치로 인한 특실은, 은연히 해당 도시와 정부의 역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설볼리 따질 수 없다.

올림픽 유치에 따른 금·부정적 측면은 동시에 다 존재한다.

장기적인 포석의 마스터플랜(기본계획)과 단계별 이행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 전북은 2014년 무주 동계 올림픽 유치에 나섰다가 결국 강원도 평창에 자리를 내줬다.

10년 만의 재도전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전북 지역에 실익은커녕 도민들의 실망감만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로켓 발사 형상의 크리스마스 조형물



9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스페이스 센터에서 방문객들이 우주를 주제로 한 크리스마스 조명 조형물 사이를 지나고 있다.

십계명 적힌 최고(最古) 석판, 경매가 28억 원 예상



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소더비에서 유대교 유클 전문가 사룬 리버먼 민츠가 십계명에 쓰인 석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석판은 약 1500년 전 로마-비잔틴 제국 시기의 것으로 십계명 석판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무게 약 52kg, 길이 약 61cm에 달한다. 1913년 이스라엘 남부에서 철로 공사 중 발굴된 이 석판은 오는 18일 경매에 나올 예정으로 낙찰가는 200만 달러(약 28억 원)로 예상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